

일본 수출규제 동향(1.2~1.5)

1.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국내 대량 생산 관련

□ [동향]¹⁾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일 한국의 화학업체 솔브레인이 설비의 신·증설을 통해 '트웰브 나인(12N)급'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발표
- 솔브레인은 12N(트웰브 나인)급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
- * 트웰브 나인(12 Nine) : 순도 99.999999999%. 용액에 남아있는 불순물의 양이 1조분의 1인 초고순도임. 수출규제 이전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일본에서 조달해 오던 불화수소의 순도는 트웰브 나인 급이었음.
- 한편 이 업체가 국내 불화수소 수요의 상당 부분을 공급함으로써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으며, 이는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낸 첫 번째 국내 자립화의 성과로 평가

□ [일본 언론 동향]²⁾

- 일본 공영방송 NHK는 1월 3일 산업부의 발표를 인용하면서, 솔브레인의 성공 사례는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향후 일본 정부에 대한 한국 측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

1)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솔브레인,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12N) 대량 생산능력 확보」 (2020. 1. 2).

2) 「韓国 フッ化水素の国内での大量生産と供給の安定性確保を発表」 『NHK NEWS WEB』 (2020. 1. 3).